

주요업무 보고

2014. 7. 21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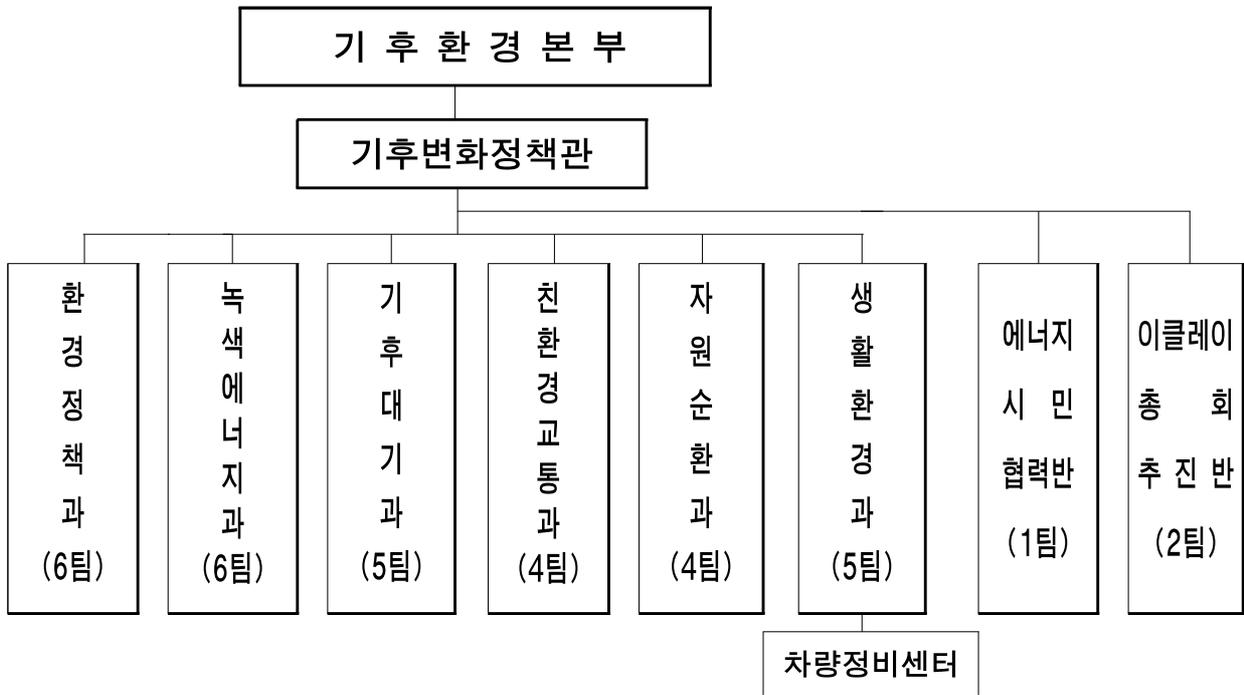
기후환경본부

목 차

I	일반현황	1
II	'14년 하반기 중점 추진사항	3
III	주요업무	5
	1. 원전하나줄이기 정책 추진	5
	2. 대기질 개선 사업 및 환경분야 국제협력	17
	3. 폐기물 처리	25
	4.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	33

I . 일반현황

조 직 1본부 1정책관 6과 2반 33팀 1사업소



인 력 223/239명(정원/현원)

(’14. 7. 17 기준)

구 분	합 계	일반직	임기제 일반직	별정직	관리운영직
계	223/239	167/170	9/8	0/0	47/61
환경정책과	36/43	28/36	7/6		1/1
녹색에너지과	27/30	26/27	0/0		1/3
기후대기과	36/35	32/28	2/2		2/5
친환경교통과	30/34	26/25	0/0		4/9
자원순환과	26/27	26/24	0/0		0/3
생활환경과	22/26	21/24	0/0		1/2
차량정비센터	46/44	8/6	0/0		38/38

주요기능

구 분	담 당 업 무
환 경 정 책 과	○ 원전하나줄이기 총괄기획 및 녹색서울시민위원회 운영 ○ 건물 에너지 효율화 사업 및 LED 보급 사업 추진
녹 색 에 너 지 과	○ 지역에너지 기본계획 수립 및 에너지 절약·생산업무 총괄 ○ 집단에너지 사업 총괄 및 신재생에너지 생산 기반 확대
기 후 대 기 과	○ 기후변화 적응계획 수립 및 대기환경정보 분석·평가 ○ 실내공기질 관리 및 비산먼지·석면 종합대책 수립 추진
친 환 경 교 통 과	○ 자동차 저공해화 사업계획 수립 추진 및 홍보 ○ 자동차 배출가스 및 공회전 단속, 승용차요일제 추진
자 원 순 환 과	○ 폐기물 처리 기본계획 수립, 수도권 매립지에 관한 사항 ○ 자원회수시설 운영 및 재활용계획 수립, 나눔장터 운영
생 활 환 경 과	○ 생활폐기물 수집·운반·처리 및 도로청소 계획 수립추진 ○ 소음·진동·악취 관련 사항 및 음식물류폐기물 원천 감량
에 너 지 시 민 협 력 반	○ 에너지 자립마을 계획·운영 ○ 에너지 절약 실천사업 공모추진
이클레이총회추진반	○ 이클레이 세계총회 기본계획 수립 추진 및 홍보 ○ 국내외 참가도시 관리 및 후원기업·환경단체 섭외

예 산

(단위 : 백만원)

구 분	2013년	2014년	증 감
합 계	618,076	640,836	22,760
일 반 회 계	265,469	252,808	△12,661
특 별 회 계	269,300	295,000	25,700
집단에너지공급사업특별회계	269,300	295,000	25,700
기 금	83,307	93,028	9,721
기 후 변 화 기 금	34,358	50,545	16,187
자원회수시설주변영향지역주민지원	28,949	32,483	3,534
수도권매립지 및 주변지역환경개선	20,000	10,000	△10,000

Ⅱ. '14년 하반기 중점 추진사항

원전하나줄이기 1단계 마무리와 2단계 착수

- 1단계 성과를 바탕으로 보다 제도적이고 체계적인 에너지절약 추진
 - － 정책, 숙의, 시민토론회 등 시민참여와 전문가의 자문을 거쳐 최종안 마련
- 에코마일리지제, 승용차요일제 등 시민의 더 적극적인 참여 유인을 위한 지원제도 안정적 업그레이드

태양광 보급 위한 다양한 시민참여, 시민홍보 태양광 사업 추진

- 아파트 설치형 미니태양광 8천개 보급 ('14.7~) 조기완료
- 시민이 직접 태양광에 투자하는 태양광시민펀드 ('14.10~) 100억원 조성

초미세먼지 중심의 대기질 개선과 기업·정부·도시 협력 추진

- 베이징 등 중국 도시와 협력, 동북아 대기질 개선 포럼 정례화
 - － 9월 개최되는 포럼에 중국, 일본, 우리나라 도시의 적극적 참여 유인
- 보일러 제작사, 자동차 제작사 등 관련업체와 미세먼지 감축 협력 추진

폐기물 혁신대책, 수도권 매립지 문제 등 안정적 폐기물 처리

- 매립지는 정부와 협력을 바탕으로 인천시와 지속적인 협의
- 생활폐기물 대행체계 개선은 전문가 자문, 공청회, 토론회 등 시민 및 관계 주체의 충분한 의견청취 등을 거쳐 단계적 추진

Ⅲ. 주요업무

1. 원전하나줄이기 정책 추진

- ① 『원전하나줄이기』 1단계 마무리 및 2단계 추진
- ② 태양광 발전사업
- ③ 신재생에너지 보급
- ④ 건물에너지효율화(BRP) 사업
- ⑤ LED조명 보급 활성화
- ⑥ 녹색산업 육성
- ⑦ 에너지를 절약하고 혜택받는 에코마일리지
- ⑧ 에너지 자립마을 조성

1-1 『원전하나줄이기』 1단계 마무리 및 2단계 추진

- ‘원전하나줄이기’ 사업은 ’12년 5월에 시작되어, ’14년말까지 200만 TOE 에너지 생산 및 절감을 목표로 추진하여 ’14년 6월까지 조기 달성
- 1단계 성과를 바탕으로, 2단계는 ‘제도개선’과 ‘사회구조의 혁신’을 통한 지속가능성을 확보, 서울이 지향하는 ‘에너지 자립·나눔·참여’의 가치 구현
 - 2020년까지 ‘전력자립률 20% 달성’, ‘온실가스 1천만톤 감축’ 목표 설정
- 시민토론회(청책) 거친 후, 시민위원회와 함께 대 시민 발표 (’14.8월)

□ 『원전하나줄이기』 1단계 주요성과

○ 200만 TOE 목표 조기달성 (단위 : 만 TOE, ’14년 6월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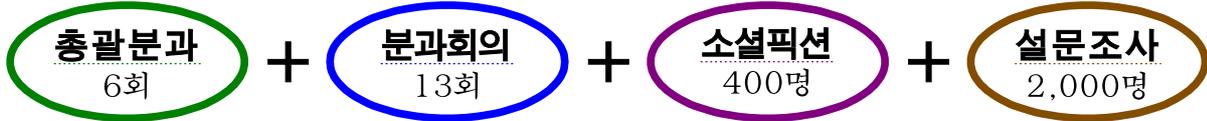
분 야	목 표	달성실적	’14년 실적	’13년까지 누계
계	200	204	78	126
에너지 생산	41	26	15	11
사용 효율화	111	87	39	48
에너지 절약	48	91	24	67

- 서울의 에너지 수급과 지역 특성을 고려한 실천적 에너지 정책 실현
 - 서울형FIT 등 독창적 제도와 사업으로 성공적 지역에너지 정책모델 제시
 - 대규모 공공LED사업, 신재생분야 민간 4천억원 투자 등 에너지산업 지원
 - UN ‘기후변화리더십상’ 등 도시차원의 우수 환경정책 사례로 세계적 호평
- 에코마일리지 등 에너지 정책에 대한 시민참여 활성화 기반 조성
 - 종교계, 기업과 60건의 MOU, 연 100여건의 시민참여 공모 등 협력사업 전개

태양광 발전 (MW)	건물 BRP (개소)	LED보급 (만개)	에코마일리지 회원 (만명)
22 → 69 (’11) (’14.6)	475 → 2,278 (’11) (’14.6)	20 → 679 (’11) (’14.6)	50 → 170 (’11) (’14.6)

□ 『원전하나줄이기』 2단계 준비

○ 『원전하나줄이기』 실행위원회와 함께 준비, 일반시민, 전문가 참여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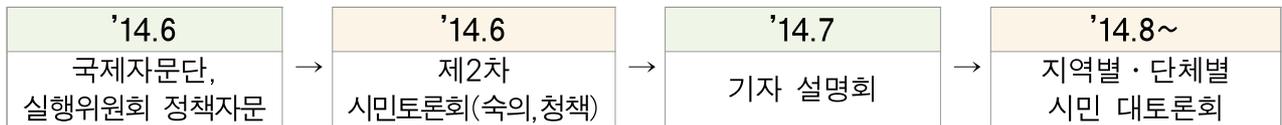
- 실행위원회 → 원전하나줄이기 2단계 준비위원회 체제로 전환, 분과별 작성

○ 1단계의 성과, 정부 에너지정책 동향, 뉴욕 등 해외도시 우수정책 반영

- 정부 『제2차 에너지기본계획』에서 적극 활용, 선도기술 서울 우선 적용

- 토트네스 '전환도시', 뉴욕 'PlaNYC 2030', EU '2030 기후·에너지정책' 분석

○ 국내·외 전문가, 시민, 관련기관 의견수렴 거쳐 대 시민 발표



【 『원전하나줄이기』 2단계 비전 체계 】

비 전	“시민이 에너지 생산하고, 효율적으로 소비하는” 『에너지 자립도시, 서울』		
가 치	에너지 자립 + 에너지 나눔 + 에너지 참여		
정책목표	1 에너지 분산형 생산도시	2 효율적 저소비 사회구조	3 혁신으로 좋은 에너지 일자리
			4 따뜻한 에너지 나눔공동체
지 표	총에너지 생산-절감 400만 TOE	2020년까지 전력자립률 20%	온실가스 감축 1천만톤 CO ₂ eq
추진전략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서울시민이 에너지 소비자에서 생산자가 되어 자립 선도 ○ 에너지 생산과 효율화가 일상화 되어 시민 삶 속에 체화 ○ 에너지 산업 육성 통해 지속가능한 좋은 일자리 연계 ○ 에너지 참여자가 수익도 얻고 기부도 하는 선순환 생태계 실현 <p>제도화 + 시민 거버넌스 ⇨ 사회구조 변화와 혁신</p>		

□ 2단계 주요 추진과제

- ① 『에너지 분산형 생산도시』 - 서울의 에너지, 서울이 해결합니다!
 - 서울형 「건물 미니발전소」 등 분산형 전원 확대
 - 빌딩 열병합 발전, 주택용 초소형열병합 보일러 보급
 - 분산형전원 설치의무화 + 운영시 경제성 확보 위한 지원 제도화
 - 환경영향평가 강화, 소규모태양광 국가FIT 재도입, 열병합용 도시가스 요금인하 등

- ② 『에너지 효율적 저소비 사회구조』 - 에너지 잘 쓰기도 생산입니다!
 - 건축물 신축·리모델링 계획단계부터 에너지효율 고려 의무화
 - 기후·에너지지도 활용, 도시관리계획 『환경성검토 에너지 심의기준』 강화
 - 에너지효율 건물가격 반영 등 시민이 스스로 느끼고 바꾸는 체계 마련
 - 에너지진단 의무화, 에너지소비증명제도 내실화, 에너지성적표 공개
 - '18년까지 20년 이상 노후건물의 20%인 9만동 BRP 추진
 - 사람중심의 에너지절약형 교통환경 조성
 - 공공자전거 2만대, 드라이빙 마일리지제 도입, 나눔카 3천대 보급

- ③ 『혁신을 통한 좋은 에너지 일자리』 - 관련 산업을 키우면 에너지도 커집니다!
 - 초록특별시, 서울형 녹색에너지 산업 육성
 - 21세기형 에너지 특화기술 지원 : 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, 스마트그리드 등
 - 절감정책이 일자리로 이어지는 시민 주도 녹색에너지 일자리 만들기
 - 마을단위 종합에너지 서비스 제공 : 에너지 허브센터, 그린인테리어 가게

- ④ 『따뜻한 에너지 나눔』 - 시민의 에너지, 이웃과 나눕니다!
 - 에너지빈곤층 지원 기반 마련하고, 에너지 전환사업 전개
 - 에너지빈곤층 실태조사 매년 1천 가구, 취약계층 LED 무상 교체 4만 개
 - 「에너지 자립마을」 확대 : 마을별 특화 사업 브랜드화, 확산

□ '14년 예산 : 430백만원

1-2 태양광 발전사업

■ 공공시설과 학교·빌딩 옥상 등의 공간을 활용한 시민참여 태양광 보급 사업을 확대하고 제도개선을 통해 햇빛발전도시 조성 기반 마련

□ 보급현황

- 서울지역 태양광 69.4MW 확보('12~'14.5 46.8MW, '03~'11년 22.6MW)
 - 공공부문 34.7MW(50%), 학교 4.5MW(6.5%), 민간부문 30.2MW(43.5%)
- 공공시설 유휴공간 활용, 태양광 발전시설 건설(23개소, 22.8MW)
 - 민간투자 635억원, 유휴공지 임대 통해 매년 5.7억원 임대 수익 발생



강북정수장(5,600kW), '14.7



광암정수장(810kW), '14.1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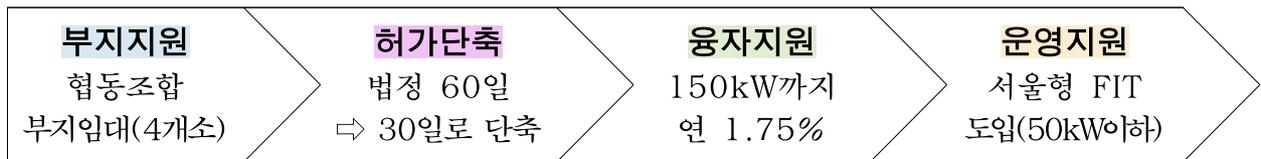
도봉차량기지(700kW), '14.1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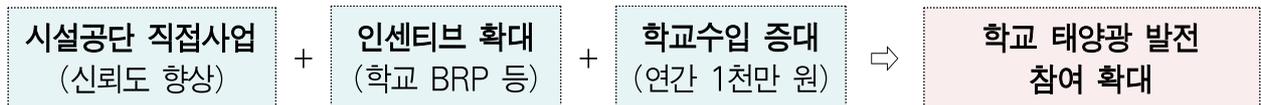
서남물재생(2,995kW), '14.2

□ 시민참여 확대를 위한 제도개선 및 지원사업 시행

- 소형 발전소에 선도적 지원 및 제도 개선



- 학교지원 병행으로 학교 태양광 사업 활성화 전기 마련



- 베란다 설치용 미니태양광 발전사업 착수 ('14년, 8천개소)
 - 주택용(3kW) 태양광 설치가 어려운 아파트 대상, 초소형 발전시설 보급
 - ▶ 제품가격 65~68만원, 가구당 설치비 30만원 지원, 24억원 규모

□ '14년 예산 : 8,613백만원

1-3

신재생에너지 보급

■ 도심 내 유휴공간을 최대 활용하여 연료전지 발전소 등 분산형 전원확보와 미활용 에너지 이용 등 친환경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통해 전력 자립에 기여

□ 전기와 열을 동시에 생산하는 연료전지 발전소 46MW 건설

- 고덕(20MW) 착공('14.2), 노을(20MW) 발전사업 법인설립('14.7), 기타 건물(6MW)
 - 2차 사업 대상지 (서남물재생센터, 신내·도봉 차량기지 : 각 20MW)
 - ⇒ 민간투자 2천3백억원(MW당 50억), 전력공급 9만세대, 열에너지 1만6천세대 공급

□ 소각열, 하수열 등 그동안 버려졌던 에너지원 자원화

폐열 이용

- 의정부 자원회수시설 소각열 수열 : 6만 Gcal ('12.12 열공급 개시)
- 부천 소각시설 폐열 ⇒ 집단에너지 열원으로 활용 : 47만 Gcal
 - 기본합의서 체결('14.2) → 공급 계약체결 ('14.6) → 열 공급개시('15.11)

하수열 활용

- 탄천물재생센터 방류수 열에너지 자원으로 회수 : 19만 Gcal ('14.10 준공)
 - 공동주택 2만 세대 난방공급, 민간투자 373억원
- 서남물재생센터 하수열 이용시설 설치 : 15만 Gcal ('14. 8 협약)
 - 공동주택 1만5천 세대 난방공급, 민간투자 350억 원

소수력 발전

- 물재생센터 하수처리 시설의 작은 낙차를 활용한 틈새 수력 발전 ('14.9 착공)
 - 서남물재생센터 방류수 이용 총 460kW 설치
- 수돗물 공급관로를 이용한 노량진 배수지 국내 최초 설치 ('14.1 준공)
 - 상수도관 24m 고도차 활용, 설비용량 300kW, 300가구 전력 공급

□ 틈새 미활용 에너지원 신규 개발

- 목재펠릿 보일러·난로 보급 취약계층 에너지 지원 : 사회복지시설 등 40개소
- 소형풍력가로등(소형풍력+태양광발전+LED등) 시범 설치 : 2개소(구로, 강동)
- 자원회수시설 굴뚝 폐열회수 지역난방 공급 실증사업 실시 : 1개소(마포)

□ '14년 예산 : 183백만원

1-4 건물에너지효율화(BRP) 사업

■ 에너지 소비의 56%를 차지하는 건물부문 에너지 절감을 위해 건물 에너지효율화사업을 추진하여 전력 자립률 향상에 기여

□ BRP 사업개요 (BRP : Building Retrofit Project)

- 건물부문의 비효율적이고 낭비적인 요인을 찾아 개선하는 사업
 - 단열개선, LED 조명교체, 고효율 보일러 교체, 폐열회수시스템 설치 등
 - ESCO 사업 등 에너지 절감비용으로 투자비 회수 가능

□ '14년까지 공공부문 59개소, 민간부문 21,687개소 추진

- 신목사회복지관 등 시립 사회복지시설 BRP 시행
- 대학, 병원, 상업용 빌딩, 주택 등 민간 BRP 21,687개소

□ 기업협력, 융자제도 개선 등 통한 BRP 활성화

- 에너지다소비시설 1대1 맞춤형 컨설팅, 사용량 순위공개 등 집중 관리
 - 다양한 민간협력 통한 참여 유도 및 사업비 인하

에너지 절약형 시범단지 조성 대림 I&S 업무협약 ('13.2월)	+	창호가격 인하 업무협약 LG등 6개사 ('13.2월)	+	지역특화 BRP 추진 G-밸리 산업협회 ('13.7월)	+	병원 에너지 효율개선 여의도 성모병원 등 30개 병원
--	---	---	---	--	---	--

- 많은 시민이 부담 없이 참여할 수 있도록 국내 최저금리로 BRP 자금융자

이율인하('13.1) 2.5% ⇨ 2.0%	⇒	대상확대('13.8) 상공업체, 세업자포함	⇒	이율인하('13.12) 2.0% ⇨ 1.75%	⇒	지급확대('14.4) 80% ⇨ 100%
----------------------------	---	----------------------------	---	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	---	---------------------------

※ 2014년 기후변화기금 융자지원 금액 및 조건

- 융자금액 : 건물 5백만원 ~ 20억원, 주택 2백만원 ~ 1천만원
- ※ 대학 등 2개동 이상의 집단건물일 경우 최대 융자지원금의 2배까지 지원 가능
- 융자조건 : 연리 1.75%, 8년 분할상환(단, 건물은 3년 이내 거치 가능)

□ '14년 예산 : 19,644백만원

1-5 LED조명 보급 활성화

LED조명 획기적 보급을 위해 공공부문 선도적 보급과 시민 밀착형 LED보급 추진으로 시민이 체감하는 LED조명 도시 조성

□ 공공조명 선도적 보급

- LED보급목표 강화 : '14년까지 830만개 보급 당초 대비 50만개 추가
 - ('12년) 84만개 ⇒ ('13년) 246만개 ⇒ ('14년) 500만개
- 신축 공공시설 LED조명 설계 의무화 : '14년부터 100% 설치
- 기존 공공시설 대규모 LED보급
 - 지하철 조명 22만개, 공공청사 삼파장 10만개 교체사업 시행 ('14.하반기)

□ 민간조명 LED보급 확대 및 산업기반 육성

- LED허브센터 조성 : 상담, 가격정보, 공동구매, 전시 등(4월~)
 - 녹색소비자연대·에코허브·성대골 등 (총 6개소, 권역별 1개) 협력
- 프랜차이즈협회, 이마트 등 협력 통한 민간 LED 시장확대 지원
- LED 연등제 등 불교 및 기독교 LED 보급사업 (4월~)

□ LED조명 붐 조성을 통한 시민참여 유도

- 광화문 등 지하철내 LED홍보역사 조성 (7월~)
 - LED전시물 + LED쉽터 + LED 홍보그래픽 등 맞춤형 홍보
- 찾아가는 LED직거래장터 운영(4월~)

□ LED조명 설치관련 제도개선

- 환경영향평가 심의기준 (10만m²이상 건물) : ('13년) 50% ⇒ ('14년) 70%
- 녹색건물 설계가이드라인(500m²이상 건물) : ('13년) 10% ⇒ ('14년) 25%
- 광고물(간판) LED설치 (간판 아름다운거리 조성) : ('13년) 80% ⇒ ('14년) 100%

□ '14년 예산 : 7,047백만원

■ 미래성장 신동력사업인 녹색산업에 대한 자금, 인력, 연구개발, 판로 등 집중적인 지원을 통해 녹색산업 육성 기반 조성 및 일자리 창출

□ 녹색창업펀드 조성 및 운영

- 기술력은 있으나 자금력 부족한 유망 녹색벤처·중소기업 투자 지원
- 3개 펀드 460억원 조성('11~'14 현재)
 - 38개 녹색중소기업 268.3억 투자, 향후 '16.9월까지 전액 투자 예정
- '15~'16년 추가 2개펀드 340억원 조성 추진(총 800억원으로 확대)
 - 신규 조성된 펀드는 '16~'20년까지 지속 투자 추진

□ 서울형 녹색기술 R&D 지원과 전문인력 양성 확대

- 기업수요에 맞는 서울형 녹색기술 R&D 발굴로 제품 실용화 제고 추진
 - '14년 3건 선정(공조기 융합시스템, 전기차 성능개선, 생활약취억제 유용미생물)
 - 기업수요 감안한 과제 적극 발굴 및 지원규모 확대 추진하여 연구개발에 따른 제품 실용화 및 특허권 취득 제고
- 녹색기술 전문인력 및 기능인력 지속 양성
 - '14년 전문인력 36명, 기능인력(특성화고 위탁) 576명 교육 지원
 - 녹색산업-ICT 이중산업 융복합과정 신설 등을 통한 산업체 필요인력 양성 추진

□ 녹색산업지원센터 지원 강화를 통한 녹색중소기업 경쟁력 제고

- 녹색기술 인증, 우수제품 판로지원 등 녹색산업센터 통한 녹색기업 지원
 - '14년 국내외 인증(6건), 판로지원(72개사), 녹색기술 시제품 제작 지원(26건) 등
- 시제품 제작 등 경영지원 강화 : 『서울 그린테크숍』 운영 ('15년)
 - 기업수요를 반영, 시제품 지원방식을 제작비 지원에서 셀프제작방식으로 전환
 - 시제품 제작 장비를 갖춘 공동작업실 운영 추진

□ '14년 예산 : 1,989백만원

1-7 에너지를 절약하고 혜택 받는 에코마일리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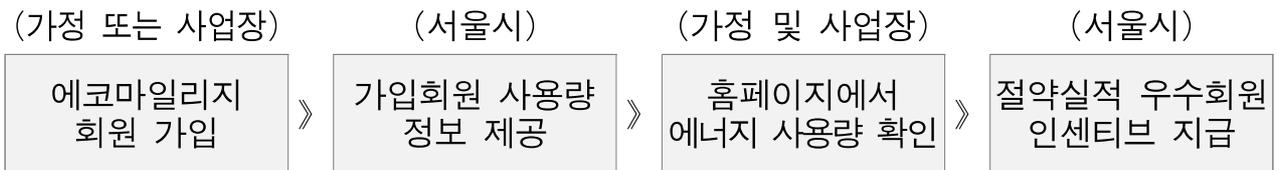
■ 기후변화의 주요인인 온실가스 배출량 감소를 위해 시민의 자발적 에너지 절감을 유도하고 절감노력에 대한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프로그램

□ 서울 에너지사용량 56%를 차지하는 가정·상업 부문 감축 추진

○ 건물분야 에너지 절감 추진을 위해 에코마일리지 시행

- 전기, 수도, 도시가스, 지역난방 중 두 종류 이상의 에너지 사용량을 6개월 단위로 직전 2년간의 같은 기간 평균사용량과 비교
- 절감량 10%이상시 친환경제품, 전통시장상품권, 교통카드충전 등 다양한 인센티브 지급

○ 수행절차



□ 회원수 및 회원이 자발적으로 절약한 에너지량 매년 증가

구 분	'12년	'13년	'14.6월
회원가입(누계)	69만	140만	170만
에너지절약(TOE)	10만	15만	19만

□ 더 많은 회원 참여와, 절약의 내실화 위해 제도 보완

- 지방세 납부 추가 등 사용처 확대 통한 가입 및 절약 유도
- 인센티브 지급조건 완화 : 에너지 절약 10% 이상 → 5% 이상 ('15년~)
 - 평가기간 단축 검토 병행 : 6개월 실적 → 3개월 실적

□ '14년 예산 : 4,967백만원

1-8 에너지 자립마을 조성

■ 주민이 주도적으로 에너지절약과 효율향상, 신재생에너지 생산으로 외부에너지 의존을 줄여 마을단위 에너지자립기반 지원

□ 단독주택 8개 마을, 공동주택 7개 마을 등 15개소, 유형별 추진중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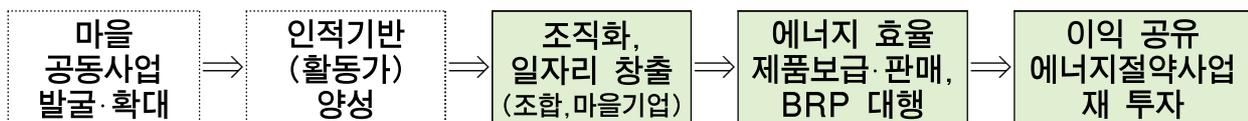
- 1단계(절약실천) → 2단계(효율화) → 3단계(생산) 등 단계별 사업
 - 마을별 절감목표 설정, 에너지컨설팅, BRP, LED교체, 신재생에너지 보급
 - 특성에 맞는 마을 스토리텔링, 견학 체험코스 개발 등 관광 상품화

□ 마을별 특성을 살린 에너지자립마을 육성

- 서울형 에너지 자립마을 대표브랜드 및 표준 모델 발굴·육성
 - 십자성마을(주택 태양광) : 전체 50가구 중 주택 태양광 22가구 설치
 - 성대골마을(절약 일자리) : 에너지컨설턴트, 교육강사, 투어프로그램 등 34명 일자리 창출
- 마을여건에 따라 맞춤형 지원하여 다양한 자립마을 확대 조성
- 미니태양광·BRP·친환경자동차 등 정책사업, 자립마을 집중

□ 새로운 에너지 절약의 기반이 되는 생태계 조성

- 성대골 에너지슈퍼마켓 모델 확산, 효율개선수의 재투자 선순환 거점화



□ 향후계획

- 에너지자립마을 조성·운영 매뉴얼 개발용역(서울연구원) : '14. 5~12월
- 에너지소비플랫폼 도입을 통한 에너지자립마을 관리시스템 구축
 - 공동·단독주택 각 1개 마을 시범도입('14. 8)후 성과에 따라 확대 ('15년~)

□ '14년 예산 : 380백만원

2. 대기질 개선 사업 및 환경분야 국제협력

① 초미세먼지(PM-2.5) 20% 이상 감축

② 전기차 보급 및 충전인프라 확충

③ 자동차 배출가스 감축

④ 『2015 서울 ICLEI 세계총회』 개최 준비

⑤ 동북아 대도시 대기환경협의체 구성

2-1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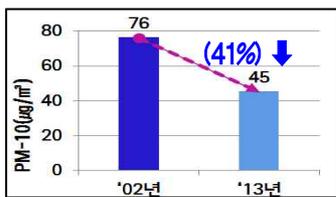
초미세먼지(PM-2.5) 20% 이상 감축

- 초미세먼지(PM-2.5)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제도적 틀을 마련하고, 시민·기업·정부의 동참을 끌어내 ‘시민이 건강하게 숨쉬는 서울’ 구현 - ’18년까지 “초미세먼지 20% 감축”, “기관지염 환자 30% 감소” 추진
- 초미세먼지 저감 순위 사업 선택·집중 + 합리적 규제 등 제도개선 지속

□ 그간 노력으로 미세먼지 저감('02~'13) : PM-10 41%, PM-2.5 38%

- 미세먼지는 대폭 개선, NO₂는 미세먼지에 비하여 개선속도 완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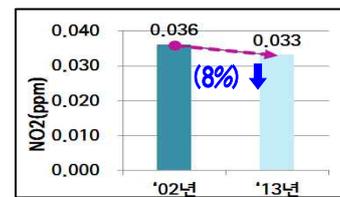
※ 그간 대기질 개선을 위한 투자비용('02년~'13년) : 1조 2천 1백억원



〈 미세먼지(PM-10) 〉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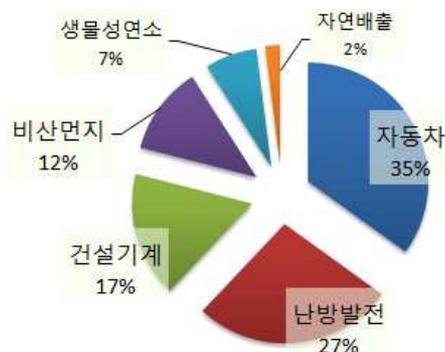


〈 초미세먼지(PM-2.5) 〉



〈 이산화질소(NO2) 〉

- 발생지역) 중국 등 국외영향 49%, 국내 타 지역 26%, 서울시 자체 원인이 21% 등을 차지
 - 북한산 PM-2.5가 22µg/m³인 점을 고려하면, 외국주변 도시 협력 필수
- 배출원별) 자동차 연소(35%), 난방·발전(27%), 건설기계(17%) 순



【 PM-2.5 배출원 우선순위 주요 저감사업 】

자동차	운행경유차 저공해화, CNG버스 전환 등
난방·발전	친환경보일러 보급, 저녹스버너 보급 등
건설기계	건설기계 엔진교체, 공사장 진입 제한 등
비산먼지	비산먼지 발생사업장 관리, 도로 물청소 등
생물성연소	직화구이 음식점 관리, 찜질방 관리 등

⇒ 발생 원인별 근원적·제도적 해결방안 추진에 역점

市 가용정책수단 초미세먼지(PM-2.5) 저감에 전력

- 대기오염 개선 효과가 우수한 『경유차 저공해화』 지속 추진
- 전기택시, CNG하이브리드 버스 등 친환경자동차 우선 보급
- 사업장 배출총량관리 대상확대 등 질소산화물 감축정책 집중
- 물청소 지속실시와 병행, 분진흡입 청소차 보급확대 → 동절기 청소 확대

원천적·근본적 저감을 위한 제도개선 등 중앙정부 협력

- 경유차 제작기준 및 운행경유차 배출허용기준 강화 추진 ('15년~)
- 자동차 오염물질 감축을 위한 기준강화 지속 건의 ('15년~)
 - 제작차 공회전 제한장치 부착 확대 등 법령 개정 건의
- 경유차 저공해사업 및 단속시스템 등 주요사업 국비지원 확대 요청
 - 공해차량 운행제한지역(Low Emission Zone) 대상차량 확대

기업과 업체 사회적 책임·협력

- 보일러 제작사와 MOU체결 등 친환경보일러 보급 확대
 - 제품생산기업과 협력, 노후보일러 사용자가 친환경보일러 구입시 지원방안 모색
- 직화구이음식점, 찜질방 등 생활주변 대기오염 배출 업소 관리 강화
 - 30㎡ 이상 찜질방 : 배출시설에 포함 → 방지시설 설치 의무화 ('15년 시행)
 - 소규모 대기오염 배출시설 : 저감 컨설팅 → 자발적 감축 유도

시민이 참여하는 대기질 개선 및 취약계층 보호

- 대중교통 이용, 교통수요관리 등 자발적 교통 수요감축 확산
- 예보시스템 구축 + 황사마스크 제공 등 → 시민건강 적극보호

'14년 예산 : 5,278백만원

2-2

전기차 보급 및 충전인프라 확충

■ 세계는 고유가, 기후변화 대응 위해 CO₂ 규제 등 전기차 보급에 주력

- EU 자동차 CO₂ 규제 : 130g/km('15) → 95g/km('20)

■ 우리시도 '09년부터 전기차 보급 중이나 충전인프라 부족, 높은 가격, 짧은 주행거리로 인한 지역간 이동 불편 등 수요 창출에 어려움

※ 전국 급속충전기 196기 (서울 56, 경기 26, 인천 11, 세종 1, 기타 102 등)

⇒ 전기택시 등 맞춤형 보급모델 개발, 휴대용(콘센트형) 충전 도입 등 충전편의 증진을 통해 전기차 대중화 시대 선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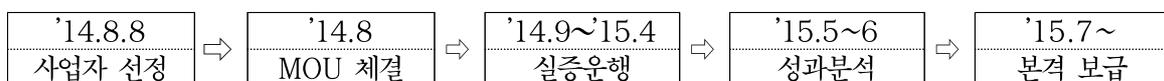
▸ 전기차 / 충전기 : '14년 1,380대 / 56기 ⇒ '18년 15,000대 / 250기

□ 시장변화 반영 맞춤형 전기차 보급 및 충전인프라 확충

구 분	전기차 보급	충전인프라 구축
'14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전기택시 실증사업(9월~) 민자 활용, CNG하이브리드버스 보급 관용차 확대(허반기~)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급속충전기 확충(30분) 실시간 정보시스템 구축·활용 휴대용(콘센트형) 충전 도입
시장형성기 ('15~'16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연비향상위한 에코타이어 보급유도(허반기~) 경유청소차 등 전기차로 보급 전기차 민간보급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급속충전기 확충(15분) 태양광 충전 시범단지 조성 인프라 광역화(수도권 ⇒ 전국)
시장발전기 ('17~'18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~2인용 “초소형전기차” 도입 배터리 교환형 전기버스 도입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급속충전기 확충(10분) 민간 충전서비스업 활성화 지원

◇ 전기택시 실증사업 추진('14.9 ~ '15.4)

- 전기택시 : 10대 (시 5대 구매, 르노삼성 5대 무상 제공)
- 충전기 : 기존 급속충전기(34기) 공유 + 급속·완속충전기 추가
- 사업자 : 사전설명회 후 공모 통해 선정



□ '14년 예산 : 8,556백만원

2-3

자동차 배출가스 감축

- PM-2.5 발생의 35%를 차지하는 자동차 오염물질 감축을 위해, 노후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, 조기 폐차, 운행제한 등 정책 집중

□ 대기오염 개선 효과가 우수한 『경유차 저공해화』 지속 추진

- '05년 이전 생산된 노후경유차 '18년까지 39만대 저공해화
 - '13년까지 27.6만대, '14년 1.4만대, '18년까지 10만대 추가 시행

계 (만대)	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	LPG엔진 개조	CNG자동차 보급	조기폐차
27.6	14.3	6.8	1	5.5

- 질소산화물(NOx) 저감을 위한 시범사업 324대('14년)
 - PM-NOx 동시 저감장치 부착 : 대형화물차(7년 이상) 등 44대
 - NOx 저감 삼원촉매장치 교체 : LPG택시(25만km 이상) 149대
 - 노후 건설기계 엔진교체 : 굴삭기 등('04년 이전 제작) 131대
- 제도개선 통한 체계적 감축
 - 공해차량 운행제한지역(Low Emission Zone) 강화

시계 진입제한 확대	수도권 ('14년) ⇨	전국확대, 건설기계 포함 ('15년~) * 수도권 특별법 개정 건의
단속 CCTV 확대	22대 ('14년) ⇨	82대 ('18년)

□ 승용차요일제 재설계 : 주행거리 기반 『드라이빙 마일리지제』 시범도입

- '03.7월 승용차요일제 시행, 승용차 238만대 중 79만대(33%)가입
 - 자동차세 5% 감면, 혼잡통행료 50%, 공영주차료 20~30% 감면
- 운휴일 미준수 등 위반차량으로 인해 제도의 보완·개선 필요
- 지방세 감면 폐지 및 실제 주행거리 감축 기반 인센티브 지급('14.9~)

□ '14년 예산 : 53,266백만원

■ 기획·준비 과정에서 시민단체, 전문가, 시민과 함께 총회 준비

■ 기후변화에 대한 도시 및 시민들의 인식전환과 실천계획 도출

* ICLEI: International Council for Local Environmental Initiatives, 자치단체국제환경협의회

총회 개요 : '15. 4. 8(수) ~ 4.12(일) (5일간)

- 장 소 : 동대문 디자인플라자, 신청사(서울광장)
- 주 제 : Sustainable Solutions for an Urban Future
- 주요내용 : 총회, 분과회의, 기후변화전시회, 시민참여행사 등



ICLEI World Congress 2015
SUSTAINABLE SOLUTIONS FOR AN URBAN FUTURE
8 - 12 April - Seoul, Republic of Korea

목표 및 중점 추진과제

- | | |
|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기 후 변 화 | ○ 지속가능발전 촉진을 위한 도시 간 공동협력사업 개발 |
| 국 제 역 할 | ○ 동아시아지역 회원도시 확대 및 네트워크 강화 |

- | | |
|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지속가능발전
실천역량 강화 | ○ 온실가스 감축운동 강화로 친환경 생활양식 정착 도모 |
| | ○ 시민이 함께 준비하고 참여하는 시민참여형 프로그램 구성 |

- | | |
|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녹 색 경 제
발 전 기 여 | ○ 녹색산업·녹색기술 관련 제품 전시회 개최 |
| | ○ 해외진출을 위한 기업 활동 지원 및 MOU 체결 유도 |

준비상황

- 『서울선언문』 채택 준비
 - 제19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('13.11)의 『국가간 온실가스감축합의』에 따라 서울선언문에 도시별 감축이행과 상호협력의지 표명 주 내용
 - 향후 각 도시가 서울선언 실행계획 및 이행도 제출 (ICLEI와 협의)
- 기후변화대응 전환점을 마련하는 프로그램 구성(이클레이본부와 협의중)
 - Citizen's Events, 기후변화전시회를 통한 시민·단체·기업 참여유도
- 기후변화대응관련 주요인사 기조연설자로 섭외 중

'14년 예산 : 500백만원

2-5

동북아 대도시 대기환경협의체 구성

■ 서울시 미세먼지 발생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중국 등 동북아 도시의 대기오염 발생 감축을 위해 도시 간 공동협력 추진

□ 도시간 MOU 체결 현황

- 울란바타르시(2.24), 산둥성(6.12) 대기질 개선 협력 MOU 체결
- 서울시·베이징시 양 시장 간 공동합의문 발표 ('14. 4. 3)
 - 대기질 개선 포럼 공동개최 및 서울·베이징 환경탐 신설 합의 등
- 요녕성, 홍콩과 대기질 개선 MOU 협의 : 체결시기 조정 중

□ 동북아 대기질개선 네트워크 구축위한 대기질 포럼 개최(9.24~26)

준비 상황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■ 서울·베이징 포럼 공동개최 추진 중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- 베이징 공동개최 합의 및 구체적 추진방안 상호 논의중■ 한국·중국·일본·몽골 10여개 주요도시 및 연구기관 참여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- 베이징 통한 중국 도시 참여유도 및 도시간 MOU 체결 중- 도시별 연구기관의 포럼 참여를 통한 공동 연구 계획 수립			
'14년 서울포럼 개최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■ 도시 간 협력 활성화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지방정부 + 전문가 + 민간기업<table border="1"><tr><td>○ 도시별 개선 계획 ○ 개선 성과 공유</td><td>○ 연구소·학계 참여 ⇒ 공동연구·정책제언</td><td>○ 대기개선 제품 전시 ⇒ 해외진출 기반 조성</td></tr></table>■ 서울선언문 채택 ⇒ 각 도시 대기환경개선 목표·실적 제시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- 도시별 대기오염 감축목표 및 실행계획을 포함한 서울선언문 작성- 매년 포럼을 통해 도시별 이행 실태 및 성과 발표	○ 도시별 개선 계획 ○ 개선 성과 공유	○ 연구소·학계 참여 ⇒ 공동연구·정책제언	○ 대기개선 제품 전시 ⇒ 해외진출 기반 조성
○ 도시별 개선 계획 ○ 개선 성과 공유	○ 연구소·학계 참여 ⇒ 공동연구·정책제언	○ 대기개선 제품 전시 ⇒ 해외진출 기반 조성		

□ 포럼 지속성 확보

- 대기질 개선 국제포럼 서울·베이징 연차별 순차개최 추진
- 동북아 대기질 개선 네트워크 사무국 서울 설치
 - 대기질 개선 포럼 계획 및 일정 관리, 도시별 우수사례 공유 등

□ '14년 예산 : 70백만원

3. 폐기물 처리

- ① 수도권매립지 이용연장 추진
- ② 생활폐기물 수집·운반 대행체계 개선
- ③ 재활용 관리체계 개편
- ④ 시민이 주도하는 나눔장터 확산
- ⑤ 음식물 쓰레기 처리

- 수도권매립지 사용기간이 2016년말로 종료됨에 따라 서울시의 안정적 폐기물 처리를 위해 매립기간 연장 협의중

수도권매립지 일반현황

- 위 치 : 인천시 서구 검단·검암동, 경기도 김포시 양촌면 일원(1,540만 m^2)
- 사 업 비 : 총 523억원(서울시 373억원<71.3%>, 환경부 150억원<28.7%)
- 면허기한 : 2016년(총매립률 55%, 제2매립장 85%)

현재상황

- 수도권매립지는 폐기물 감량 등으로 2016년 이후에도 사용이 가능하나 인천시에서 반대하고 있어 사용기간 연장을 위해 관계기관간 협의중
- 매립지는 국가적으로 필요한 시설로서 중앙정부, 3개 시·도, 시민단체, 전문가 등과 연장협력을 진행중에 있으며, 폐기물 감량방안도 추진중

그간의 추진상황

- 서울·인천간 공동 T/F 구성·운영('11.11~현재)
 - 수도권매립지 사용기간 연장, 매립지 주변 환경개선 등 현안사항 논의
- 환경부 및 3개 시·도 국장급 협의체 운영('11.12~현재)
 - 매립기간 연장, 매립지 주변 지역개발, 매립지내 인천AG 경기장 건설지원 등

향후계획

- 환경부, 3개 시·도간 실무 협의체 운영을 통해 해결방안 모색
- 매립지 연장 필요성 등에 대한 각계각층 공감대 형성
- 생활폐기물 감량 및 처리기반 구축을 위한 자체노력 강구

3-2

생활폐기물 수집·운반 대행체계 개선

- 수수료 장기간 동결에 따른 대행업체 수지악화로 환경미화원의 낮은 임금, 시설투자 기피 등 청소서비스 질 저하 우려
- 전문가 자문, 공청회 개최 등 충분한 공감대 형성하여 연차별·단계적 대행체계 개선 추진 필요

□ 민간대행체계 현황

- 수집·운반 민간대행업체 수는 증가추세로 자치구 청소분야 핵심 역할
 - 106개 업체('00) → 114개 업체('08) → 117개 업체('13)
 - 일반쓰레기, 음식물쓰레기, 재활용품의 대부분을 대행업체가 수거
- 낮은 임금 등 대행업체 근로자의 열악한 근무조건 개선 필요
 - 대행미화원 임금 직영미화원의 55% 수준(대행 226만원, 직영 412만원)
- 장기 수의계약, 해당지역 영업권 보장에 따른 서비스 수준 하락 우려
- 청소대행 지불방식인 『독립채산제』 지방재정법령위반(법제처 유권해석)

□ 주요 개선방향

- 대행업체간 경쟁체제 도입, 장기수의계약 관행 개선
- 현재 40% 수준인 종량제수수료 주민부담률 단계적 현실화
- 민간대행업체 환경미화원 임금·복지수준 개선
- 「독립채산제」에서 「실적제」로 민간대행체계 전환

준비기('14)	⇒	전환기('15~'18)	⇒	정착기('19~)
- 대행체계 개선계획 수립 - 대행업체 평가지침 마련		- 종량제 수수료 단계적 인상 - 실적제 조기전환 자치구 지원		- 실적제 전 자치구 전환 - 대행업체 평가 지원

□ 추진일정

- 시의회, 자치구 및 관계기관·단체 설명, 시민공청회 : '14. 8~9
- 자치구 '폐기물관리조례' 표준조례안 등 가이드라인 마련·시행 : '14.10~

3-3

재활용 관리체계 개편

■ 공동주택과 달리 재활용품을 문전·혼합 배출하고 있는 주택가 대상, 이동식 정거장 설치·운영, 재활용 확대 및 취약계층 일자리 연계

□ 추진목표

구 분	2013	2014	2015	2016
동수	5개동	57개동	200개동	300개동
정거장수	112개소	983개소	5,000개소	7,500개소
일자리창출 (폐지어르신 등)	112명	983명	5,000명	7,500명

※ 총 423개동 중 지역여건 고려 300개동 실시(아파트 밀집, 선별장 설치 지역 제외)

□ 추진배경

- 단독주택 재활용품 분리배출 체계 개선으로 재활용률 향상
 - 거점배출로 인한 골목길 청결도 향상과 종량제봉투 혼입 재활용품 선별배출
 - 품목별 분리수거로 재활용 성장개선 및 선별장 잔재 쓰레기 감소
- 사회적 취약계층(폐지 수집어르신 등)의 안정·지속적인 일자리 연계
- 자치구 처리비용 절감 및 마을공동체 분위기 조성
 - 재활용수집운반비, 잔재폐기물 처리비용 절감 및 종량제 봉투구입량 감소
 - 일정한 시간 거점배출로 주민소통기회 확대

□ 추진실적

- '13년도 4개구 112개소 주택가 재활용정거장 시범 운영('13.6~12)
 - 구로구(신도림,고척1동), 성북구(성북동), 노원구(상계3동), 강동구(고덕동)
 - 운영성과 : 구로구(신도림동) 표본 성과분석
 - ▶ 재활용수거 약 50% 증가, 종량제봉투 사용 약 30%(세대당 36.5ℓ) 절감

○ '14년 상반기 운영현황 : 6개구 26개동 123개소 운영

구 명	동수	정거장수	운영주기	시간	비 고
계	26	123			
마 포 구	1	26	화, 목, 일	18시 ~ 21시	주택가
강 동 구	1	5	화, 금	06시 ~ 10시	공원 인접지역
양 천 구	4	15	상시	09시 ~ 18시	상습 무단투기지역
구 로 구	1	10	월, 금	17시 ~ 21시	주택·공장 혼합지역
성 동 구	17	17	월, 목	19시 ~ 21시	동주민센터
동대문구	2	50	일	09시 ~ 18시	주택가

— 마포구 성산1동 3개월 운영성과('14.4.1 ~ 6.30)

▶ 주 3회(화, 목, 일) 재활용정거장 거점 배출

구 분	운영 전	운영 후	비 고
일반생활쓰레기 배출량	300톤	210톤	30% 감량
재활용품 수거량	230톤	320톤	40% 증가
재활용품 수집운반처리비	68,900천원	51,900천원	17백만원 절감(24%)
폐비닐 수거량	12톤	23톤	92% 증가
재활용품 판매수익	-	21,060천원	1인 월평균 370천원
일자리 창출	-	26명(폐지수집어르신)	

— 관련사진



□ '14년 하반기 확대계획

- 상반기 추진 사례 및 성과를 집중 분석·보완하여, 지역별, 유형별 롤모델 마련 ⇨ 하반기 추진 자치구에 사례 전파('14.7월 시달)
- 상반기 6개구 123개소 → 하반기 13개구 983개소 확대 추진

□ '14년 예산 : 1,509백만원

3-4

시민이 주도하는 나눔장터 확산

- 도심 광화문 나눔장터 정례화 등 재사용 문화를 확산하고, 장터품목과 행사를 다양화하여 시민에게 볼거리 제공 및 관광명소로 조성

□ 도심 최대의 7일장, 광화문 희망나눔장터 활성화 (3~11월)

- 다양한 볼거리와 일자리 기회 제공을 위한 전문보부상 확대

- 재활용 시민장터, 업사이클 예술장터, 사회적경제·자활기업, 농부시장, 풍물시장, 외국인장터, 열린예술극장 등
- '13년 7개 품목 45명 ⇒ '14년 13개 품목 86명



- 보부상 확대, 장터 안전관리 강화 및 올바른 분리수거를 통한 재활용 문화 확산

- 장터내 재활용정거장 설치·운영으로 재활용쓰레기 분리수거 캠페인 추진

□ 도심 나눔장터와 생활밀착형 녹색장터 운영 내실화

- 도심 나눔장터(3~11월, 매주 토·일) : 도심 한강공원 광장

- 재활용장터(어린이·시민), 테마장터, 재활용품 소재 체험프로그램
- 상반기 13회 5,465팀 판매 참가, 13만명 관람, 221천점 거래

- 녹색장터(3~11월) : 아파트 주차장, 공원 등 일상 생활공간

- 자치구 주관, 상설재활용장터 및 생활주변장터 운영
- 상설재활용장터 13개소, 민간단체 주관 313개소



□ 향후 추진계획

- '나눔장터시민위원회(가칭)' 거버넌스 구축 및 관광브랜드화('14.9~)

- 사회공헌, 홍보 등 다양한 방식의 기업참여 및 공동홍보

- 장터판매방식의 다양화를 통한 주변상권 활성화 및 재사용문화 확대

□ '14년 예산 : 1,023백만원

3-5

음식물 쓰레기 처리

■ 음식물쓰레기 감량 및 안정적 처리를 위해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정착 및 안정적인 공공처리 기반을 구축하여 시민불편 해소

□ 가정 및 사업장에서 1일 평균 3,070톤 발생 (단위 : 톤/일)

구 분	계	가정	다량배출 사업장					
			소 계	집 식 단 소	음 식 점	대 규 모	농 수 산 장	관광·숙박 시설
2013	3,070.0	1,920.5	1,149.5	170.8	815.8	92.2	36.0	34.7
2012	3,311.7	2,233.1	1,078.6	191.9	674.6	101.1	70.6	40.4
감량률	△7.3%	△14.0%	6.6%	△11.0%	20.9%	△8.8%	△49.0%	△14.1%

□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정착 및 공공처리시설 확충

- 공동주택 RFID 세대별종량제 정착으로 발생량 30% 감량
 - 단독주택 : 세대별종량제(전용봉투 23개구, 전용용기 2개구)
 - 공동주택 : 단지별종량제(18개구), 세대별종량제(7개구) 병행시행
 - ▶ 단지별종량제 시행 공동주택의 RFID 방식 세대별종량제 전환 추진
 - 음식물쓰레기 주배출원 음식점 등 다량배출사업장 감량·홍보 강화
- 공공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 확충
 - 공공처리시설 5개소 운영 : 강동, 도봉, 송파, 서대문, 동대문
 - 신규 시설 조성 및 확충 : 신설 2개소, 확충 2개소
- 대형감량기 보급으로 음식물쓰레기 감량 추진
 - 감량기기 가이드라인 마련 및 보급 지원 : 18대(5.5억원)
- 디스포저(세미-디스포저) 방식의 합리적 추진으로 배출편의 제고
 - 디스포저 : 마곡지구, 세미-디스포저 : 4개구 260세대 시범설치

□ '14년 예산 : 4,367백만원

4.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

- ① 소음, 악취 등 생활환경 저해요인 집중관리
- ②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개선
- ③ 깨끗하고 쾌적한 거리 가꾸기

4-1

소음, 악취 등 생활환경 저해요인 집중관리

- 정온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공사장·사업장소음, 생활주변 악취 등의 원인과 현황 공개를 확대하고 발생원별 분석으로 체계적 해소

□ 맞춤형 소음관리로 소음 민원발생 '18년까지 30% 저감

소음민원 건 수	27,558('13)	→	25,000('14)	→	22,000('15)	→	19,000('18)
-------------	-------------	---	-------------	---	-------------	---	-------------

- '13년도 소음민원 27,558건중 생활소음이 96.8% 차지
 - 공사장 21천건(79.1%), 사업장 3천건(10.9%), 확성기 2천건(8.2%)
- 소음 상시모니터링 시스템, 소음민원해결사 등 정보공개 및 시민참여 확대
 - 1만 m^2 이상 대형공사장 소음 상시모니터링시스템 운영
 - 25대('14년) → 50대('16년) → 대형공사장 설치 의무화('20년)
 - 소음민원해결사 활용, 명동·홍대 등 소음과잉 발생사업장 자제홍보 ('14.7)
 - 소음사전억제, 공사장 공정별 대책 포함한 『소음관리종합대책』 시행 ('15년~)

□ 발생원별 대책, 악취방지 조례로 '17년까지 악취민원 20% 감축

- 악취발생사업장 : 악취배출시설 약 3,000개소, 비규제 생활악취 15만여개
 - 일정 규모이상 도장시설(5 m^3), 고무플라스틱 등 2,920개소, 폐기물관련시설 47개소
 - 생활악취 : 용제세탁 6,101, 목욕장 1,134, 음식점 14만여개
- '악취없는 쾌적한 서울' 추진 기본계획 수립 시행 ('14.3)
 - 배출원별 관리, 향기나는 서울만들기 4개 분야 25개 세부과제 추진
 - 야간·새벽시간대 측정까지 가능한 이동 악취 측정차량 운영
- 서울특별시 악취방지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정('14.10)
 - 악취저감기본계획 수립, 재정적 지원근거, 관리체계 등

□ '14년 예산 : 814백만원

4-2

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개선

- 실내공기질 관리강화와 자율적인 실내환경 관리유도로 건강증진
 -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공개 및 사각지대 없는 실내공기질 관리 유도
- 쾌적한 공기질 조성을 위해 지하철 전동차의 실내공기질 관리 강화

□ 실내공기 관리 추진

- 자발적 실내환경 관리 유도를 위한 실내공기질 관리정보 공개
 - 어린이집, 영화관, 학원 등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검사결과 공개('14.7)
- 신축공동주택 실내공기질 오염도검사 확대 실시('14)
 - 100세대 이상(20% ⇒ 100%)
- 실내공기질 관리 컨설팅 및 우수시설 인증제 확대('14.7)
 - 관리 사각지대에 있는 반자하 주택 실내공기질 컨설팅 최초 실시(리돈조사 병행)
 - 우수시설 인증대상에 학원, PC방 등 청소년 이용시설로 범위 확대



'13년	⇒	'14년
어린이집, 산후조리원, 노인복지시설(건강민감군)		건강민감군+PC방, 학원 등 (청소년이용시설)

- 전동차 실내공기질 측정 등 실내공기 관리
 - 전동차량 실내공기질 법 시행 전부터 측정기준($200\mu\text{g}/\text{m}^3$) 이내 관리('00년~)
 - ※ 법 시행('14. 3) 전부터 전동차량에 대해 오염도 검사 실시

□ 실내공기질 측정 강화 및 발전방향

- 지하철 전동차량 오염도 측정점검 강화 및 시설개선
 - 전동차량 오염도 측정 : 2년 1회 → 연 2회로 강화 ('14년)
 - 전동차량 자동환기시스템 확대('15년~) : 2,168차량(766량 기 도입)
- 『서울형 실내공기질 관리지표』 설정
 - 시설별 최적 쾌적도 지표 개발 : 미세먼지, CO₂, 온도, 습도 등

□ '14년 예산 : 497백만원

4-3

깨끗하고 쾌적한 거리 가꾸기

- 도심주요지역에 대한 취약시간대 도로청소를 강화하고, 주민과 함께 깨끗한 거리 가꾸기 실시로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

□ 도심 주요지역 청결도 향상 특별대책 추진

- 시민, 관광객이 많이 찾는 도심주요지역 ‘서울365청결기동대’ 운영
 - 환경미화원이 근무하지 않는 야간, 주말에 가로 쓰레기 청소로 가로 청결 향상 및 장년층 일자리 창출 기여
 - ▶ 운영기간 : '14. 3. ~ 12. (발대식 개최 : '14. 3. 2)
 - ▶ 6개구 50명 (명동, 대학로, 이태원, 신촌, 홍대, 영등포역 주변 등) 운영
 - 시·구의 역할 분담으로 추가 재정부담 최소화 등 효율적 운영·관리
 - ┌ 시 : 기동대 인건비·장비 예산 지원, 복장·손수레 디자인, 취약지역지도 제작·운영 지침 마련
 - └ 구 : 기동대 채용, 임금지급, 복무관리, 휴게공간 지원
- 거리 청결 향상을 위한 쓰레기 종량제 봉투 디자인 개선 시범사업
 - 종량제봉투 디자인 개선 용역 및 시민 공모전 수상작 선정('14. 1 ~ 5)
 - ▶ 개선 디자인 쓰레기 종량제봉투 제작 : 5천매 ('14. 6월)
 - 대학로 동숭동 일대 시범사업 실시('14.7월) 후 확대여부 결정

□ 주민과 함께 하는 깨끗한 거리 가꾸기

- 골목길, 무단투기 상습지역 등 거리입양 주민 자율청소 지속 추진
 - 골목길 등 거리입양 자율청소 참여 : 1,585개 단체 47천명
 - ▶ 자치구홈페이지 등을 통한 자율청소 신청 → 봉사활동실적 부여·청소용품 지원 등
- 주민 자율청소 우수단체(자치구) 선정·시상 : '14.11~12월
 - 주민 자율청소 우수단체(구) 선정·인센티브 지원 및 우수사례 발굴 확산

□ '14년 예산 : 1,006백만원